

일주문



제1회 불광장학금 2000만원 수여
지홍 스님(불광사 회주)은 8월 24일 서울 불광사에서 제1회 불광장학회 장학금 2000만원을 학생 15명에게 수여했다.



대구시청유마회 창립20돌 기념법회
대구 도심사 주지 원오 스님은 8월 29일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을 모시고 대구시청 유마회(회장 권태형) 창립 2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사회부 사회국장 임명
재경 스님은 8월 28일 총무원 사회부 사회국장에 임명됐다. 스님은 1989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고 송광사, 해인사 선원에서 정진해왔다.



태국 국립대 명예박사학위 받아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운문승가대학장)은 9월 7일 운문사에서 태국 국립대학교 총장 담마코사란 스님으로부터 명예철학박사학위를 받는다.



진각종 위덕대 제4대 총장 취임식
진각종립 위덕대 배도순 총장은 8월 28일 취임식을 갖고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배 총장은 8월 1일자로 제4대 총장에 선임됐다.



제2차 미안마돌기 의류발송
윤천수 미안마불교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9월 5일 중앙신도회관에서 제2차 미안마돌기 의류발송을 진행한다. (02)733-7277

문광부 종무실장에 권경상씨

신인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에 권경상(52·사진) 문광부 기획조정실장이 8월 21일자로 임명됐다. 권경상 신임 종무실장은 1967년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나 대광고와 한국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권 실장은 문화관광부 공보관, 관광국장, 국립중앙도서관장 등을 거쳐 3월부터 문광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아왔다. 김성우 기자



동국대 최규철·허천택 신임이사 선출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영배)는 8월 26일 제 241회 이사회를 열고 2인의 이사를 선임했다. 최 규철(57·사진)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부총장(사진 왼쪽), 이재창(58·사진)은 동국대 서울캠퍼스 부총장(사진 오른쪽)이 선출됐다. 조동섭 기자



“종교편향 없는 연합회 만들터”

전국여교수련 제10대 회장 정경연 교수인터뷰

전국 여교수 6000여명을 대표하는 전국여교수연합회 제10대 회장에 불자인 정경연 교수(홍익대·사진)가 선출됐다. 정 교수는 1980년부터 28년간 홍익대 미대 교수로 재직하며 국내외에 ‘장갑작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예술가다. “말 못하는 병아리의 수화, 노동자의 거친 손, 황제의 손까지 제 장갑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장갑 같은 평등을 전국여교수연합회에서 이루겠습니다.” 전국여교수연합회장으로 선출된 정 교수는 뜻밖에 종교간 화합을 강조했다. “전국여교수연합회 공문마다 성경구절이 들어가고, 임원진은 개신교 일색이었습니...

사, 어머니는 경북 스님 유발상좌였던 성법행 보살입니다.” 성법행 보살은 前 속대 동창회장을 지낸 故 정금주 여사다. 정교수의 부친은 정무장관 등을 역임했던 정재철 前 동국대 동창회장이다. 미국 유학 중에 불교공부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정 교수는 귀국 후 인신선원, 조계사 불교대학 등에서 불교를 배웠다. 성철·해암 스님 등 여러 선지식을 친견하며 관음행(觀音行)이라는 법명도 받았다. “관음만으로도 벽간대 행까지 불은 법명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스님에게 오원(奧元)이라는 법명을 받았지요. 60세가 넘으면 큰스님께 받은 관음행을 사용할 겁니다. 어린이 포교활동을 중심으로 불교 문화활동을 하려고요. 이름값 해야죠.” 방학마다 용맹정진한다는 정경연 교수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대의원 등 불교계에서 묵묵히 자기 몫을 해왔다. 1990년 국내 중견 여성작가로는 처음 석주미술상을 수상한 정 교수는 1994년부터 10여년간 (사)텍스타디자



인협회 회장직을 역임하는 등 미술계 중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경연 회장은 “지역별·대학별·전공별 안배로 차별 없이 전국여교수연합회를 운영하겠다”며, “특히 임기 1년동안 ‘사랑’과 ‘화합’을 화두로 정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간화선 배우러 왔어요”

UN 총회의장 부인 라조바 키림 봉은사서 템플스테이

“간화선 체험 하러 왔어요.” 제62차 UN 총회의장 스프린트 케임 총회의장 부인 스프린트 라조바 케임 여사(50·마케도니아·사진)가 한국불교를 체험하기 위해 8월 25일 봉은사를 찾았다. 이번 케임 여사 방문은 국무총리 초청 UN총회의장 부부 방한으로 이뤄졌다. 봉은사 템플스테이 체험은 이명박 대통령 예방, 고려대 강연회, 판문점 방문 등 바쁜 일정에도 선례에 대한 여사의 열의가 반영된 것. 이날 케임 여사는 봉은사 교육국장 맥스 스님과 함께 경내 대웅전, 미륵대불 등을 둘러본 후 봉은선원 수련원에서 사찰을 찾은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는 ‘집단지혜’를 체험하며 ‘뜨다(喫茶)’의 의미와 조주 선사 공안 등 차와 관련된 선문답을 들었다. 케임 여사는 “베트남 불교 등 남방불교의 위빠사나를 아들과 함께 8년 전부터 해왔다. 위빠사나로 마음과 몸의 건강을 되찾아 선(Zen)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방한을 계기로 간화선을 체험해 보고자 봉은사를 찾았다”고 말했다. 매년 10월씩 수행처에서 위빠사나를 한다는 라조바 여사는 봉은사 교육국장 맥스 스님이 “한국 스님들은 하안거·동안거 90일씩 180일을 한다”는 말에 놀라며 “스님들이 어떻게 수행하시는지 보고 싶다”고 관심을 표했다. 곧 이어 참선시간에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 화두를 받은 라조바 여사는 “부모미생전 내 몸은 일종의 에너지 형태로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하지만 논리적인 답을 떠나 계속 의심을 갖고 궁구해 보겠다”며 “화두를 처음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스님께서 지도해 주신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참선 후 채식으로 짜여진 한국 고유의 전통 사찰 음식들로 식사를 마친 여사는 “담백한 사찰음식이 매우 맛있고 훌륭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을 만나 차담으로 일정을 마무리한 케임 여사는 “1200여년의 전통을 지닌 사찰에서 내면에 대한 성찰을 중시하는 한국불교를 맛볼 수 있었다”며 기뻐했다. 한편, 케임 여사는 화계사 등 한국사찰을 더 둘러본 후 8월 26일 판문점 방문, 대통령 예방으로 방한일정을 마쳤다. 노덕현 기자



일본문화원 초청 ‘영산재’ 성료한 해사 스님

일본에서 영산재(종교문화제 제50호)를 성료하고 귀국한 해사 스님(육천범음대학 작법반 교수·사진)은 8월 28일 만났다. 일본 오사카문화원 초청으로 오사카한글문화원 대강당에서 봉행된 영산재는 600여 전 좌석이 매진사례를 이뤘다. 영산재법담(단장 일운) 30명이 22·23일 무대에 올랐으며 ‘식당작법’의 핵심을 염선해 기존 구성의 변화를 모색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스님은 영산재이탈로 불교의식을 넘어 한국문화에 대해 대표한다고 강조했다. “웅장한 법패 소리와 바라춤이 일본인들에게 확실히 각인된 것 같다. 법식이 무대 위로 이동했을 뿐 진심의 마음이 전해져 깊은 여운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며 소감을 전했다. 육천범음대학에서 인재양성에 매진중인 스님은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에서 불교문화에 대한 연구를 전공하는 학인이다. 스님이 강조하는 ‘중심한 기본’의 초심은 참다운 공양구인 몸으로 부처님의 설법을 재현하는 자부심으로 통한다. 영산재는 현재 유네스코 등재를 앞두고 있다. 기연숙 기자



종단진흥총연합회 LG데이콤과 협정체결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회장 회암)와 LG데이콤은 7월 14일 ‘불교정보 사업 활성화 협정’을 체결하고 전국 8000여개 사찰과 신도들에게 인터넷집전 ‘myLG070’을 제공하기로 했다. (01)7390-0809

천태종, 기업은행 광고후원금 2억원 수탁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8월 22일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기업은행 광고후원금 2억원을 전달받았다. 천태종 하계 간부교육 회향식을 겸해 열린 이번 전달식에는 정산 스님과 유취대 기업은행 부행장의 스님 600여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군중교구 예비군수후보생 하계교육



군중특별교구(교구장 일만)는 8월 26-29일 기명 수기사 연호사에서 예비군수 하계교육을 개최했다. 정기하계교육 외에 각종 의식실수나 살림실수 등이 진행된 교육에는 예비군수 44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도선사, 갯바위서 ‘종교차별’ 규탄



서울 도선사(주지 혜재)는 8월 23일 관봉석조여래좌상(일명 갯바위부처님)을 찾아 공직자들의 종교차별을 비판하는 법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는 선목 스님, 선본사 주지 환적 스님, 최병국 경산시장을 비롯해 도선사신도 1500여 명이 참가했다. 손범천 대구지사장

신흥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성료



속초 신흥사(주지 무산)는 제3회 신흥사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8월 15-17일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담사 민해마을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인제식을 시작으로 지혜주만들기, 촛불명상, 찬불가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성우 기자

스님! 병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병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개강일: 9월 8일 월요일반 ·개강시간: 오후 1시

▶ 교육기간: 6주(24시간) ▶ 모집인원: 선착순 10명 ▶ 교육비용: 60만원 ▶ 대상: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사항

-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에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략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 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기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향·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

● 담보내용

Table with 4 columns: 구분, 화재, 화재, 상해. Rows include 기본담보, 선택담보, and their respective coverage details.

● 유의사항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시 필요자료

-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가입 및 상담 문의

011-648-1203 / 010-9996-7700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6호

동부화재 서일석(無着) 합장